

#Me too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목소리

GENDER
EQUALITY



나윤경

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
한국,

개인적인 것이
정치적일 수 없는..

- ◇ 「영화 1987」과 Me Too!
- ◇ 비판적 외침과 성찰
- ◇ ‘그’ 정치와 ‘이’ 정치



사적인 것이 「가장」 정치적이다



‘그’ 정치가 삭제한 피해자중심주의

성폭력 범죄 피해자중심주의의 근거

- ◇ 객관적 증거확보의 어려움(불가능)
- ◇ “내가 바로 그 증거다”
- ◇ 피해자, 가해자 권력 차이의 균형



피해자중심주의의 한국적 상황

- ◇ 여성(성폭력 피해자)에 대한 보편적 불신 : 꽃뱀 (좋아했다, 바라는 것이 있다, 질투다...)
- ◇ 범죄(자)의 성별성에 따른 차별 : 수십 년 간의 몰카 범인들 vs. 홍대 몰카 범인
- ◇ 피해자의 시간성 : “언제 때 일을 지금?”
- ◇ 섹스의 非여성경험적 상징들 : “지발로 모텔에...” “침대에 누웠잖아...”
“샤워했다며...”
- ◇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: 갑질 vs. 합의적 관계

행위자들이 공유해야 할 지식

피해자중심주의 실천의 어려움

- ◇ 지인에 의한 일상적, 남성중심의 '남만'각본 : 남성성, 치기, 놀이
- ◇ 성폭력 인지의 지체
- ◇ 명백한 의사표현의 생똥맞음(관계적자아)
- ◇ 성적자기결정권의 연령/젠더/직급/권력차이 (애정vs.폭력)

행위자들이 공유해야 할 지식

- ◇ 상징적 합의 vs 구체적 합의
- ◇ 약속(가변적) vs 계약(app)
- ◇ 성폭력 피해자, 가해자 시간성 차이
- ◇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계급적 시각(행실론)

법의 反 피해자 중심주의

- ◇ 성적 자기결정권의 젠더성:
남성중심의 데이트 각본과 문화
- ◇ 정황적 증거해석의 남성중심성
- ◇ 위계(位階)에서의 합의 불가능성
- ◇ 성범죄 공소시효의 불가능성:
지체된 인지, 관계적 자아, 성범죄 모호성

